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항)



2019 년 3 월 3 일 5 시 50 분(현지시간)

상파울로(브라질)에서

22 년의 수도생활을 하신 우리

콘체이사오 다스 도레스 니코메데스 수녀님이

향년 48 세에 성부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연중 제 8 주일에 제 2 독서에서 성 바오로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성부께서는 긴 투병기간 동안 사목사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치유의 희망을 결코 잃지 않으셨던 우리 콘체이사오 수녀님을 당신께로 부르십니다.

콘체이사오 수녀님은 1970 년 상파울로(브라질) 엘도라도 파울리스타에서 열 두명의 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셨고 1970 년 6 월 21 일 엘도라도의 우리 성모님이신 구이아 본당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992 년 3 월 11 일 입회하여 상파울로 자르딴 다스 빠스도리나스에서 1995 년 1 월 31 일 수련기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1997 년 1 월 26 일에 첫서원을 하셨습니다. 면학과 사도직을 하며 유기서원기를 사셨고, 1997 년에는 빅토리아 공동체, 2001 년에는 피라치카바 공동체(이곳에서 2005 년 9 월 3 일 종신서원을 하셨음.) 두 개의 공동체 에서 특히 청년사목을 하셨습니다.

심리학 공부를 마친 뒤에 인근의 빈민 아이들에게 방과후 수업을 통해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맞아들인 자르딴 공동체에서 “선한목자예수님의 벗들” 계획을 조직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특별히 아이들의 가정 자체를 지원하는 일에도 헌신하셨습니다. 동시에 2006 년 상파울로 자르딴과 2009 년 상파울로 알토 다 라파에서 그리고 2011 년 상파울로 자르딴으로 돌아가서 청년 사목 활성화에 헌신하셨습니다. 2011 년에서 2015 년까지 그리고 건강이

위태로웠던 2013 년에서 2015 년까지 관구 평의원직을 충실히 수행하셨고 양성장 봉사도 헌신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콘체이사오 수녀님은 기쁘고 사목사명을 사랑하셨던 분으로 묘사됩니다. 특히 어려운 가정과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향한 감수성과 돌봄을 드러내셨고 온갖 사회적 가난에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또한 생명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강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전례와 모임에서 노래를 하고 기타를 치셨습니다. 양성기에 있는 한 자매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어머니이며 자매이고 친구이며 양성장이셨습니다. 확고하고 강하고 용기있고 부유한 신앙을 지니셨고 살기를 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콘체이사오 수녀님은 2013 년부터 견고한 암과 싸움을 했고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가득한 마음을 간직했고 수녀님의 가족까지 행복시켰던 여러가지 시련들에도 불구하고 항상 더 가차없이 드러나는 병마에 맞서 싸웠습니다.

2018 년 9 월에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나는 복자 알베리오네의 전구를 통해 치유가 된다면 세상의 어떤 장소이건 나의 존재가 필요한 곳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강렬한 고통의 순간에도 생명에 대한 강한 애착과 사목사명을 향한 지지 않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한 사랑과 사목성소에 대한 사랑을 증언한 이 수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콘체이사오 수녀님을 동반하고 신앙과 하느님께 내맡기는 이 여정에서 수녀님을 특별한 방식으로 지탱해주며 사랑으로 그리고 관대하게 모든 필요한 돌봄을 봉헌한 자매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콘체이사오 수녀님을 아버지의 자비에 맡겨드리며 전 바오로 가족의 사명이 열매 맺어 성소가 증가하고 우리가 성공의 비결 정신으로 살아 우리 시대의 고통받는 인류에 봉사하여 스승이시며 목자이신 예수님을 살고 줄 수 있도록 수녀님의 전구에 맡겨드립니다.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
총원장

2019 년 3 월 3 일, 알바노 라찌알레 (로마)